북스

Books

담배와 술 왜 끊기 힘들까

즐거움의 가치사전 박민경 지음

"시가(cigar)는 유희의 하나이다. 시가 연기가 위로 올라갈 때 우리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연기를 쫓아간다. 마음이 진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마음이 너그러워 진다. 이것이야 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아닌가."(비스마르크)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왜 흡연자들은 담배를 옹호할까. 극단적으로 탐닉할 경우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황폐화시키는 술은 왜 끊지 못하는가.

에세이, 영화비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경씨가 쓴 '즐거움의 가치사전'은 '현대인들에게 쾌락(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41가지 욕망의 근원을 파헤친 책이다.

집필하는 데 1년, 자료 수집에 30여년을 보냈다는 저자는 풍부한 문학 작품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쾌락이 쾌락이 되는' 심리적, 철학적, 사회적 이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즐거움을 사랑, 섹슈얼리티, 사회적 쾌락, 여가의 쾌락, 지적 쾌락 등 5개 범주로 나눈 뒤 풍부한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실을 들어 즐거움의 실체를 조명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쾌락에 대한 결론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비실체적 현상이며, 쾌락의 완전한 소멸은 불행하게도 죽음에 이르러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쾌락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경우 자신의 행위를 더 깊이 관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의미로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본질은 '몸에 대한 주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데 있다. 성폭력은 타인의 몸을 훼손함으로써 지배욕을 충족하려는 행위다. 성폭행이 단순한 성행위 차원을 넘어서 잔혹함을 동반하는 것은 이 지배욕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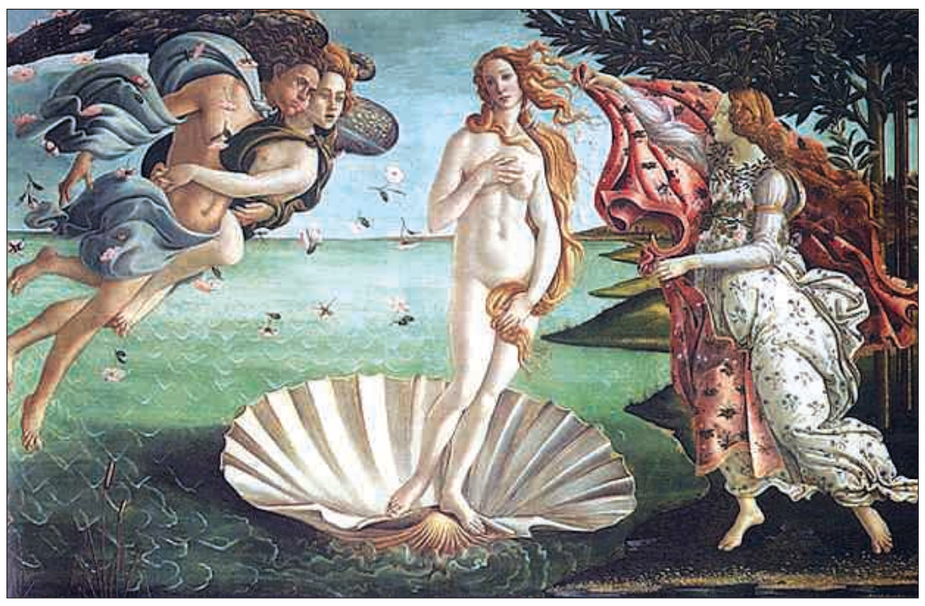
유행처럼 만연하고 있는 애완동물 키우기는 '매력적인 기형'에 대한 사랑이다. 애완동물의 외형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은 귀여운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교배를 통해 품종이 개량된 것이다. 애완동물의 커다란 눈망울, 서툰 행동은 모두 인간 아기의 특징을 띤 것으로 강력한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이다.

민족이 같은 혈통집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애는 상상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으로 분류되는 유대인도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도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이 단일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갖게된 것은 유일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상은 각 나라의 국사(國史) 교육을 통해 증폭된 후 민족의 이름이라면 목숨까지 버리는 국민을 양성하게 됐다.

매춘은 가장 오랜 직업 가운데 하나다. 구약성서에도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각국이 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난한 매춘부들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매춘을 조장하는 모든 사회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사·1만9천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간의 몸치장은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몸치장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뽐내고자 하는 욕구에서도 비롯된다. 사진은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관계 부재 '뒤틀린 남성의 삶' 바로잡기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 스티븐 비덜프 지음

40~50대 남성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축 처진 어깨,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등이다. 이같은 남성의 비애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 스티븐 비덜프가 쓴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은 외로운 현대 남성들의 스트레스와 고독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흔들리는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 아이들이 행복할 리 없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저자는 이같은 좋지못한 징후들을 떨쳐내기 위해 남성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길을 제시하고, 남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보여준다.

저자는 슬픈 이야기들로 말을 꺼낸다. 저자가 나열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들. 그리 즐거울 것도 없는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사는 남성들에게 즐거운 일이란 어떤 것인지 딱히 떠오르지도 않는다.

저자가 '뒤틀린 남성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남성 스스로의 실패와 고통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후 엉클어진 부부관계, 빗나간 자녀들과의 관계,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 자연 및 공동체와의 관계 등을 바로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해결책을 거꾸로 분석해보면 결국 '관계의 부재(不在)'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저자는 이문제가 아버지와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원시 부족사회에서 남자 아이는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배움을 얻고 일정한 의식을 통해 부족의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당신에게 남성됨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영향력 있게 가르친 사람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다. 좋든 싫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머릿속에, 근육 속에, 신경조직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흐트러진 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아버지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을 걸어 손을 내밀라고 조언한다. 나의 일부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믿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젠북·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방송인 이다도시 한국생활 15년 책으로

방송인 이다도시는 하이톤의 목소리로 거침없는 말을 뱉어내다 화들짝 놀라는 표정과 함께 "올랄라~"를 외치는 모습으로 기억된다.

이다도시가 15년 간의 한국생활을 책으로 엮었다. '이다도시 한국, 수다로 풀다'는 한불수교 120주년이던 지난해 프랑스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온 이다(Ida au pays du Matin Calm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재번역한 것이다.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 회사 회식 때 옷차림에 대해 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시어머니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아랫목을 내주자 당황해하던 친정 부모 등 저자는 이방인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를 그 만의 화법으로 얘기한다. 〈이미지박스·1만원〉

▲행복을 찾아서=샌프란시스코 거리의 노숙자에서 1억8천만 달러의 자산가가 된 월 스트리트의 전설 크리스 가드너의 자전 에세이. 윌 스미스 주연의 동명 영화로 제작돼 국내에서도 최근 개봉했다. 가드너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부터 다루고 있다. 〈한스미디어·1만2천원〉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정치 지리의 세계사=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송사인 '아르테'에서 17년 동안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지도의 이면'에서 50개의 주제를 뽑아 책으로 냈다. 지도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역사·지리적 의미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책과함께·1만9천800원〉

▲반야(전 2권)=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 송은일씨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조선 영조 시대 무녀인 반야가 운명을 거역하고 떠돌다 이상 세계 실현을 목표로 비밀조직 '사신계'에 들어가 운세를 보고 장래를 점치는 '칠요'의 자리에 오른다. 〈문이당·각 권 9천800원〉

▲의학사의 터닝포인트24=과학 저널리스트 로버트 애들러가 의학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풀어쓴 책. 고대 의학의 갈레노스, 소독법의 제멜바이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실체를 밝힌 파스퇴르와 코흐 등 24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다. 〈아침이슬·1만2천원〉

▲여자들을 위한 라이프코치='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가 여성들을 위해 쓴 자기계발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자아 실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다. 의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에 보내는 메시지. 〈북코프·9천300원〉

▲환경호르몬의 반격=환경생물학자 린드세이 벅슨이 환경호르몬은 왜 안 좋은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말해준다. 저자는 환경호르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내 몸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한다. 〈아롬미디어·1만원〉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들'이란 뜻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단어 '앙팡 테리블'을 탄생시킨 장 콕토의 대표작. 주인공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두서없는 사건의 나열, 모호한 의미 구조 등은 누로 로망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뿔·9천500원〉

▲입술=등단 10년 만에 내는 소설가 이명랑의 첫 소설집. 9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다. 장편 '꽃을 던지고 싶다', '삼오식당' 등과 같이 대부분 저자 자신이 나고 자랐던 영등포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스러져가는 영등포시장의 현실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저자의 의지가 보인다. 〈문학동네·9천500원〉

▲부모로 산다는 것=중앙일보 전 사진부 기자 오동명씨가 '부모 노릇'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에세이. 저자는 중앙일보 회장의 탈세사건 때 회사를 그만두고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좋은 부모로 산다는 것과 자녀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등을 일깨운다. 〈두리미디어·9천800원〉